

농촌생활문화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

- 전라남도 영암군을 중심으로 -

조혜정* · 박정희* · 심규남** · 김동한***

(*목포대학교 소비자 아동 주거학과 · **목포대학교 의류학과 · ***목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A Rural Tourism with Rural living and Culture in Youngam-Gun, Chollanam-Do

Cho, Hea-Joung* · Park, Jeong-Hee* · Shim, Gyu-Nam** · Kim, Dong-Han***

*Dept. of Consumer, Housing & Child, Mokpo National University

**Dept. of Food & Nutrition, Mokpo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lothing & Textiles, Mokpo National University

적 요

지역의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활용하면 지방의 활력과 경쟁력을 재고할 수 있고, 농촌의 증가나 전통마을은 의식주문화와 공동체문화를 보존·계승할 수 있는 귀중한 문화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농촌생활문화자원의 활용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서로의 교류를 즐기는 체재형 여가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주체적 참여에 의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생활문화를 체험하고자하는 문화관광 수요가 클 것으로 예측되는 전남 영암군을 조사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농촌생활문화를 활용한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민박가정과 증가는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2000년 4월~5월 세 차례), 증가, 민박가정, 민박마을을 대상으로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분야의 실측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다. 또한, 관광객(2000년, 2001년 왕인박사 축제기간 참가자)을 임의로 선정하여 개별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영암군은 다양한 문화유적이 있고, 자연, 전통, 고향을 간직하고 있는 전통마을과 증가들이 여전히 그 기능과 형태를 보존하고 있었다. 농촌관광이 관광객의 요구, 관광환경, 관광지역주민의 상호관심을 토대로 도시와 농촌이 상호교류, 공존할 수 있고, 생활복지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영암군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요구되는 관광객의 요구와 관광환경의 여건은 잘 준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관광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역할과 주체적인 참여가 시작되어야 할 단계이다.

농촌생활문화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개발을 위해서는 ① 농촌여성의 적극적인 농촌문화관광자원의 생산자, 공급자의 역할, ② 민간주도의 자발적인 주관기구설치, ③ 마을별 생활문화자원의 자료화를 통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직접 어우러져 함께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해 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문화는 정신적 여유와 기쁨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 개인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근원이 되어 21세기에는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전통문화와 생활문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증가나 전통마을을 찾는 농촌문화관광도 비약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의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 지방의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고, 농촌의 증가나 전통마을은 우리 고유의 전통적 의식주와 공동체문화를 보존, 계승할 수 있는 귀중한 문화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농촌관광사업도 유희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어 주로 농산물 직판농원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초기의 형태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농촌휴양형, 심신수련형, 자연학습형 등 쉬고, 느끼고, 교육하는 기능 중심의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과 맥락을 같이 하는 농촌관광사업은 유럽 및 일본에서 green tourism, rural tourism, farm tourism 등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는 농촌 지역에서 그곳의 자연, 생활, 문화,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기는 체재형 여가활동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기는 체재형 여가활동형의 농촌관광자원이 되기 위해서는 농촌주민이 자신의 생활문화자원과 향유한 자연자원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려는 주체적 참여의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진다.

영암군은 국내 타지방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하고 차별성이 돋보이는 농촌문화자원들이 많다. 이를 농촌문화관광으로 발전시킨다면 농촌문화관광을 통한 농촌주민의 경제적 소득활동이 될 수 있다. 영암군은 서화, 판소리, 도자기, 다도 등 독특한 남도문화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고, 월출산 등 자연명승지, 선사시대와 백제문화 사적, 농업박물관, 독특한 향토음식, 도기문화센터 등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 이 지역은 백제의 옛 터전으로 찬란한 문화유산이 도처에 있고 오늘날 일본이 있도록 한 우수한 선진문화를 전수한 곳도 이 고장의 선조 들이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일본문화의 원류를 호남에서 찾고 있고 여건이 허락하면 이곳을 찾기를 희망한다. 앞으로 일본관광객과 국내의 타지역 문화를 애호하는 관광객들은 영암지역의 생활문화를 체험하고자하는 문화관광 수요가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암군 지역의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게 되는 농촌생활문화를 활용한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암군의 일반적인 관광자원현황 검토, 영암군의 농촌마을의 특성, 영암군의 농촌생활문화자원 조사를 통하여, 영암군의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농촌생활문화를 활용한 농촌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조사지역

영암군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 실태는 문헌 및 자료를 고찰하여 파악하였고, 영암군의 민박 가정과 증가의 조사는 참여관찰조사 및 면접조사로 이루어졌다. 민박 가정과 증가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는 2000년 4월과 5월중에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고, 4성씨의 증가집과 일반 6가구의 민박 가정과 민박마을을 대상으로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분야의 실측조사가 별도로 이루어졌다. 또한 2000년과 2001년 4월에는 영암 왕인 박사 축제기간에 참석한 관광객을 임의로 선정하여 개별 면접조사가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은 영암군 군서면 구림 마을과 죽정 마을, 영암군 덕진면 영보 마을, 영암군 학산면 광암 마을 등 4개 마을이다.

II. 농촌생활문화에 대한 논의

1. 문화관광

문화에 대한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 있어 문화관광(cultural tourism)을 지역의

관광개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에 대한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문화에 대해 Tyler(1871)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이 습득한 지식, 신념, 예술, 도덕, 법, 관습과 기타 능력과 습관이 포함된 복합체라고(Godbey, 1981 : 123) 정의한 것과 같이 광범위하다. 또한 관광현상도 포괄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관광객이 목적지와 관광상품을 단순히 교환 가능한 단일 상품과 서비스차원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방문대상 지역의 기후, 문화 및 지리적 환경과 같은 특성들의 집합(the bundle of characteristics)을 고려하여 선정한다는 점이다(Bull, 1991 : 152-153).

이상과 같이 포괄적 의미가 결합되어 있어서 문화관광에 대한 정의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WTO에서는 협의의 문화관광을 “공연예술을 비롯한 각종 예술감상, 축제 및 문화행사의 참여, 명소 및 기념물의 방문, 자연·민속·예술·언어 등의 학습여행과 순례여행 등 문화적 동기에 의한 여행으로 보고 있으며, 광의 의미로는 문화관광은 모든 관광”을 의미한다는 것이다(한국관광공사, 1995 : 15).

또한 문화관광에 대해 Richards(1996)는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상권을 떠나 문화적 자원으로 이동하는 것이라는 개념적 정의와 일상권을 떠나 사적지, 문화 및 예술적 표현물과 드라마 등과 같은 특정 문화적 자원으로 이동하는 것”이라는 기술적 정의로 구분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다(Richards, 1996: 22-24).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관광개발을 위해 상품화가 가능한 문화적 요소로 범위를 한정하여 문화관광의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문화자원을 이용한 관광개발은 지역문화 및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관광수요가 개별화 및 차별화 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지역의 문화자원은 지역별로 개성을 유지하고 있어 지역의 문화적 요소가 관광개발에 반영될 경우 변화하는 관광수요에 대처할 수 있고, 나아가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관광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문화관광은 인간의 창조활동과 발전과정의

성취인 유산, 유적, 유물, 전통공예, 예술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제도 그리고 창조주체로서의 인간에 초점을 맞추는 관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인간의 삶의 흔적과 풍요로운 과거를 탐구하는 의식이 깔려 있고 그와 같은 욕구를 지향하는 동기가 부여되어 있다. 그렇기에 문화관광은 인간에 대한 믿음과 상호 배움, 만남의 행위인 동시에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추구하는 문화활동인 것이다. 다시 말하여 경제적 풍요를 뛰어넘는 인간다움과 상호이해를 추구하는 창조적 문화활동인 것이다.

2. 농촌문화관광

문화관광의 범위에 속해 있는 농촌문화관광은 풍부한 자연, 아름다운 경관, 농가 등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서비스가 주체가 되며, 농촌이 지닌 다양한 생활문화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관광이다. 또한 대규모의 개발보다는 지역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마음의 접촉, 인적교류의 측면을 중시하며 농촌에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와서 주민의 지역에 대한 자부심, 농업에 대한 이해촉진, 생활·문화자원의 축적, 청소년의 U턴 등의 실효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도시민에게는 단지 일회성 즐거움의 제공이 아니라 농촌생활 문화의 체험을 통하여 농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자연과의 연관성을 자각하고 인간성을 함양하는 자기실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3. 농촌생활문화

농촌생활문화는 농촌지역사회가 주로 갖고 있는 행동양식 또는 생활양식을 총칭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간적 차이에 기초를 둘 때 농촌생활문화는 지방문화, 향토문화와 개념상의 혼란이 생긴다. 그러나 지방문화는 부분적인 특정지역의 문화를 뜻하고 서울 이외의 모든 지방의 문화를 일컫는 용어이다. 한편 향토문화는 어떤 특정지역의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 우리나라의 문화는 대부분 농경문화에 기초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문화나 향토문화

는 농촌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공통점으로 나타난다.

농업을 위주로 하는 산업구조는 기후, 지형, 토질 등 자연적 조건은 인공적으로 개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술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과거에는 자연에 순응할 뿐이었다. 농촌주민은 자연에 대하여 어떤 신념이나 의미, 신앙심 등의 가치체계를 부여하고 자연에 적응하고자 한다.

농촌주민의 인간관계는 공동사회적 관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것은 개인으로서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보다는 집단으로서 대응·적응하였던 것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사회적 관계에서는 개인간의 인간관계가 자연적·유기적 감정조화로써 나타나고 애정과 이해 및 동정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전인적 인간관계로 나타난다. 제한된 자연자원과 토지수용력 때문에 농촌인들이 서로의 내력을 잘 알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도 기인한다.

농촌주민의 집단구조는 혈연과 지연에 기초한 동족부락의 성격을 많이 가지며 이러한 연유로 농촌의 집단은 공동사회적이며 도덕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

농촌에서 주로 나타나는 문화의 특질을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봉쇄적이고 고정적인 농촌사회에서는 고정된 전래의 행동양식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농촌 지역 사회에서는 전통주의와 권위주의가 지배하는 성향을 띠고 있다.

둘째, 농업은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천재에 의한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은 산업이기 때문에 자연 숭배 및 운명주의적 행동성향을 보이기 쉽다.

셋째, 농촌가족은 소비집단인 동시에 생산집단이다. 따라서 소농체계화의 농촌주민은 가족적 노동력을 통하여 자급자족 형태의 농업활동을 하게되어 농촌인 생활의 대부분은 가족에 집중되고 그 통제 하에 놓이게 된다.

넷째, 직업의 분화가 단순하고 전통적인 관습의 압력 하에 있는 농촌에서는 성원들이 비교적 동질적이다.

III. 영암군의 일반적인 관광자원 현황

1. 영암군 연표

- 가. 선사시대에 청동기시대 고도의 문화집단이 거주나, 삼한시대에는 마한에 속함
- 다. 삼국시대에는 백제에 속하였고 월나군(月奈郡)이라 칭함
- 라. 통일신라시대 경덕왕 17년(758년)에 영암군으로 개칭
- 마. 고려시대 성종 15년(995년) 남주 삼남도호부 설치, 현종 9년(1018년) 남주 삼남도호부를 폐지하고 다시 영암군으로 개칭
- 바. 조선시대 융희 8년(1914년)에 11개 면으로 분합사. 대한민국 1979년 영암면이 읍으로 승격된 후('79. 5. 1) 1읍 10면
 - 영암읍,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시종면, 도포면, 군서면, 서호면, 학산면, 미암면, 삼호면

2. 영암군의 농촌문화관광지로서의 특성

중국과 일본, 그리고 동지나 해로 뻗어나가는 국제 교역으로서 수 천년의 역사를 안고 흐르는 물길을 끼고 완만한 구릉이 새동지처럼 감싸안은 역사의 고을이다. 수많은 명승 고적과 찬란했던 남주 문화 유산을 간직한 영암군은 영산강이 영암의 서쪽 경계를 이루며 서남해로 흐르고 있고, 동쪽은 산물결을 이루며 장흥군과 접해있으며 남도의 소금강 월출산 줄기가 병풍처럼 두르고 서 있는 전라남도의 서남단에 위치해 있다.

예로부터 중국의 앞선 문물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일본에 전해주던 문화의 교량으로 백제시대 일본에 건너가 일본인의 스승이 된 왕인 박사가 탄생한 고장이며 지리도참의 대가로 더 유명한 도선국사와 고려 4왕 태사였던 별박사 최지몽선생, 1세기전에 우리음악의 새로운 장르인 가야금산조를 창조한 명률 김창조 선생등을 배출한 인걸의 고장이기도 하다.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국립공원 월출산이 중앙에 뻗쳐있어 웅장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고 서쪽으로는

10리에 달하는 연륙도로와 8개의 갑문으로 이루어진 동양 최대의 인공담수호인 영산호가 위치해 있으며 1,200년전 최초로 인공유약을 사용한 시유도기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봄철 영암 목포간 100리에 달하는 도로에서 피워내는 벚꽃과 그와 때를 함께하여 열리는 정부집중 육성축제로 선정된 왕인문화축제는 영암을 찾는 이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3. 영암군의 관광지와 관광자원

영암군에는 표 1과 같이 월출산(809m)을 중심으로 도갑사, 군서면의 왕인박사 유적지와 주거변천사 야외전시장, 영암도기문화센터, 느티나무, 금정면과 서호면을 중심으로 하는 830여기의 고인돌, 서호면 장천리의 청동기 시대의 마을터, 시종면 내동리의 쌍무덤과 옥야리의 고적분, 서호면 장천리의 선사주거지, 영암읍의 영암향교, 서호면의 구고사, 덕진면의 영보정과 최성호씨 가옥, 최덕지 영정, 신북면의 삼층각과 영팔정, 학산면의 집영재와 영암여래입상, 삼호면의 농업박물관과 국민관광지 등이 있다.
(<http://www.yeongam.chonnam.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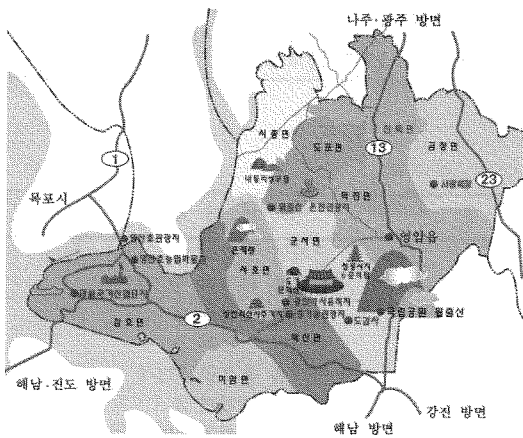


그림 1. 영암군의 주요 관광지

본 연구의 조사지역은 위의 그림 1에서 왕인박사 유적지를 중심으로 한 영암군 군서면, 덕진면, 학산면 등 3개 면 4개 마을이다.

표 1에서는 자원의 특성에서 월출산 국립공원 및 인근지역인 도갑사와 문화유적인 영보정과 왕인박사 유적지와 연계되었다.

표 2의 영암군 소재 국가지정문화재에서는 군서면 도갑리에 있는 도갑사 해탈문과 도갑사 석조여래좌상, 덕진면 영보리에 있는 최덕지영정 및 유지초본과 최성호 가옥, 군서면 구림리에 있는 구림리 토기요지 그리고 학산면 학계리에 있는 김함의묘 출토 의복 등의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계된 문화관광 프로그램이 되도록 한다.

IV. 영암군의 농촌생활문화자원 현황

1. 농촌마을 특성

가. 죽정 마을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에 위치한 죽정 마을은 월출산 서남쪽 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영암군의 죽정 마을은 그 마을 자체가 관광자원이 될 만큼 우리의 전통 농촌 마을의 정취를 갖고 있다. 특히 다슬기가 살고 있을 만큼 청정한 시냇물을 사이로 농촌주택들이 높지 않은 흙돌담을 사이로 모여 있고, 수령이 많은 벚꽃나무들이 봄에는 무릉도원을 연상시키며, 가을에는 집집마다 감나무들에 감들이 주렁주렁 열려 풍요로운 농촌 마을 모습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옛날의 도갑사 입구였던 자리, 즉 지금의 도로옆 죽정리에는 정조의 능에 피우는 향을 생산해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했다는 국장생이 서있다. 죽정 마을 인근은 왕인박사와 도선국사가 태어나 자란 곳으로 도갑사, 왕인 박사 유적지, 상대포 등이 위치하고 있다. 인근에는 왕인 벚꽃축제가 개최되는 곳이며, 왕인 박사가 학문을 쌓은 문산재와 양산재가 마을앞 산에 있으며 마을 전역이 대나무가 울창하게 분포되어 있고, 봄에는 벚꽃으로 화려함이 있고 마을 중앙으로 도갑골의 깨끗한 물이 항상 흐르는 물 맑고, 경치 좋은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을 마을 구석구석에 간직한 마을이다. 죽정 마을의 마을이름은 160년 전 낭주 최씨 득수 선생께서 안용당을 건립하고

표 1. 영암군의 주요 관광지 및 관광자원

자원의 특성	명 칭	자원 현황
월출산 국립공원 및 인근지역	월출산 국립공원	천황봉, 향로봉, 사자봉, 구정봉, 경포대, 칠치폭포, 바람폭포, 구름다리, 집단시설지구, 산악경관
	천황사	대웅전터, 목탑지(복원예정)
	도갑사	해탈문(국보), 동자상(보물), 석조여래좌상(보물), 지방문화재
	성기동 국민관광지	모험놀이시설, 전망대, 야영장 등 86.6. 23 국민관광지 지정
	영암온천	지하 1층 지상 7층 59실 규모, 게르마늄 온천
자원의 특성	명 칭	자원 현황
영산호, 내수면 및 주변지역	영산호 국민관광지	영산호, 배수갑문, 백조공원, 영산강 하구연 등 93. 10. 10. 국민관광지 지정
	농업박물관	재래농기구, 영산강개발실태, 특산품, 현대농업관 등
	내수면 낚시터	영산호, 학파1·2저수지, 청통제, 울치제, 금호지, 성산제, 금지제
문화유적	마애여래좌상	월출산 구정봉 아래에 위치, 용암사지 인근 소재
	영보정	인근에 최성호가옥, 양암정 등 문화재 입지
	왕인박사 유적지	탄생지, 석인상, 책굴, 상대포, 문산재, 양사재 등
	시종 고분군	내동 쌍무덤 3기, 장동 방대형 1기 신연리 고분 14기(95년 8기 조성) 옥야리 고분 19기(10기조성)
	선사주거지	수혈식 주거지, 고상가옥지, 전시관 1동, 지석묘 등
목장 및 휴양시설	서광목장	젓소 1,600두
	금정내산	골프장, 위락단지, 산성성곽
기 타	영산호안	태백·매월지구, 낚시터, 내수면 양식장 등

표 2. 영암군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구 분	지정 번호	명 칭	소 재 지
국 보	제 50호	도갑사 해탈문	군서면 도갑리 8
	제 144호	월출산 마애여래좌상	영암읍 회문리 산 26-3
보 물	제 89호	도갑사 석조여래좌상	군서면 도갑리 4
	제 594호	최덕지영정 및 유지초본	덕진면 영보리 297-1
	제1118호	성룡사지 오층석탑	영암읍 용흥리 533-1
	제1134호	도갑사 소장 동자상	군서면 도갑리 8
	제1283호	월출산 용암사지 3층석탑	영암읍 회문리 산26-8
	제1305호	김완 영정	서호면 회송리 159
	제1309호	엄길리 암각매향명	서호면 엄길리 산 85
중요민속자료	제 164호	최성호 가옥	덕진면 영보리 294-1
	제 209호	김함의묘 출토 의복	학산면 학계리 산2
천연기념물	제 283호	군서 느티나무	군서면 월곡리 747-2
사 적	제 338호	구립리 토기요지	군서면 서구립 319

자료 : 영암군 관광종합개발 계획(1996) p.8을 재정리 한 것임.

대나무를 심어 점차 온 마을에 퍼져 '죽정'이라 부르게 되었다. 죽정 마을은 이와 같은 풍부한 역사적 문화재와 농촌의 자연경관 때문에 전남남도지정 민박마을이다.

나. 구림 마을

월출산 남쪽에는 월남촌, 서쪽에는 구림촌이 있는데 모두 신라때 이름난 촌락이며 서남해가 서로 맞닿는 곳에 있어 신라때 이름난 촌락이며 신라가 당나라로 들어갈 때도 모두 이 곳에서 배로 떠났다고 한다. 이 천년 남짓 역사를 지닌 구림 마을 이름은 도선의 탄생설화에서 나온 비둘기와 대숲을 엮어 구림이라고 불렀다는 내력이 있다. 그리고 도선과 관련하여 도갑사와 지방문화재가 많이 있는 마을이다. 또한 왕인 박사 탄생과 관련된 내력도 있어 그 탄생지를 성기골이라 하였고 현재 왕인 박사 유적지가 있고 벚꽃이 피는 봄철에 왕인박사 축제가 개최되는 곳이다.

또한 종가집이 많이 있는 구림 마을은 돌담을 가진 기와집들이 유서깊은 강당을 중심으로 모여 있으면서 종류 이상의 전통마을의 품위를 갖고 있어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인위적이지 않은 전통주거 현장 학습지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 구림 마을에 남아 있는 문중 관련 문화자원은 간죽정, 죽정서원, 박성건의 영당, 구림대동계의 집회소인 회사정, 국암사(남주최씨), 서호사(창녕조씨), 동계사(해주최씨), 죽림정(연주현씨) 등이 있다.

다. 영보마을

사립적인 분위기를 지닌 전주최씨 연촌 최덕지가 영암지방의 영보촌으로 입향하였다. 최덕지는 영보촌에 은거하면서 존양루를 짓고 학문에 전념하였다. 다시 왕의 부름을 받아 예문관 직제학겸 춘추관 기사관에 제수되었으나 다시 귀향하였다. 1450년 그 때 문종은 최덕지의 영정(보물 504)을 하사하였고, 동료 문인이었던 성 삼문, 하 위지, 박 팽년, 유 성은, 이 개 등이 송별시를 지어 주었고 이 송별시는 영보정 존양루에 걸려 있는 편액에 새겨져 있다. 현재 이 집안의 종손 최연창과 증부 최복실이 영보마을에 살고

있다. 현재도 영보마을은 전주최씨의 동성마을로 그 마을의 규모와 모습이 우리나라 전통마을의 특성을 잘 간직하고 있다.

영보마을에 남아 있는 문화재는 연촌 최덕지의 영당(문종이 하사한 연촌의 영정을 모신 곳), 영보정(대동계의 집회장소), 합경제(연촌 최덕지의 영당 앞에 있는 제실), 전주최씨 종가(종손 최연창이 거주), 존양루와 존양당(종가 내에 위치), 판각(연촌 최덕지의 문집 판각) 등이 있다.

라. 광암마을

연주현씨로 영암에 입향한 자는 현윤명(1572-1656)이다. 그의 손자 현징이 서호정에 죽림정을 짓고 주변 선비를 가르쳤다. 구림촌에 살던 연주현씨가 학산면 광암으로 이거한 것은 일제하 큰 부를 확보했던 문중성원들이 이곳 광암을 중심으로 많이 거주했고, 이를 소작하고자 많은 문중 성원들이 이 마을을 찾아들었기 때문이다. 현준호(1889~1950)가 1천 5천두락의 대규모 학과농장을 간척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이 마을은 6.25때 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를 입어 마을의 규모와 모습은 많이 훼손되었으나 현재 종손과 다름없는 현희선씨가 종가의 일을 맡아 살고 있다.

광암 마을에 남아 있는 문화관광자원은 미륵석불, 연주현씨 종중재각, 현희선씨 고가(중요민속자료 지정, 현준호씨 생가) 등이 있다.

2. 먹거리

영암은 전통음식의 고장으로 다양한 음식들이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잘 상품화하고 자원화한다면 향토문화산업의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영암의 유명한 음식과 먹거리 특산품은 다음과 같다(정희중, 1991; 김동한, 1996; 농촌영양개선연구원, 1994).

가. 전통식품과 향토음식으로는 어란, 갈낙탕, 짬뽕어탕, 낙지구이, 양탕, 산나물비빔밥, 토하젓, 전어창젓, 장어구이, 결명자차, 양탕, 장어탕, 아구찜, 해물탕, 무화과잼과 무화과식초, 진양주가 있다.

나. 특산품으로는 세발낙지, 참기름(덕진), 오이(도포, 학산), 무말랭이, 단감(서호, 금정), 수박, 고구마, 배(신북), 무화과(삼호), 간척지쌀(시중), 고추(미암), 토종닭(군서) 등이 있다. 한편 영암군에서 추천하는 군 특산 농산물은 표 5와 같으나 타 지역과 차별화가 가능한 품목은 무화과와 무화과 잼 이다.

또한 왕인문화축제 기간에 영암군 소재 각 면의 증가 음식을 선정하여 대표적인 음식을 먹거리로 축제기간에 관광객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표 6과 같다.

3. 민박가정의 침구류

영암 지역의 증가와 민박 가정 20가정을 대상으로 침구류 현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가. 침구의 형태는 모든 가정이 이불과 요로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나. 방 1실 당 침구는 정해진 수량만큼 비치되어 있지 않았으나 민박객이 원하는 만큼 제공을 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었다.

다. 이불과 요의 홑이불(이불 호칭)은 전통적인 한

식의 이불과 요의 형태로 실로 사방을 시침질하여 사용하는 가정이 13가정이었으며 전체를 자루형태로 뒤집어 끼우는 형태도 7가정이 있었다.

라. 침구에 사용하는 솜은 주로 화학솜이었으며 목화솜을 사용하는 가정은 3가정에 불과하였다.

마. 홑이불(이불, 요, 베개)로 사용하는 천은 혼방(면/폴리에스테)이나 나일론 등 화학섬유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면섬유는 2가정에서만 사용되었다.

바. 홑이불(이불, 요, 베개)로 사용하는 천의 색깔은 무늬가 있거나 중간정도의 색깔이었으며 흰색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사. 베개에 사용하는 속은 왕겨를 사용하는 가정이 11가정이었으며 화학솜을 사용하는 가정은 9가정으로 아직은 왕겨를 사용하는 가정이 많았다.

V.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주제적 농촌문화관광 개발을 위한 제언

1. 영암군의 농촌마을 특성 유지

최근 전통적인 것의 기능에 대한 재평가와 도시민

표 5. 영암군 생산 특산물

농 산 물	주 산 지	특 징
간척지쌀	군서, 서호, 미암, 삼호	밥이 찰기가 있고 구수함
황토고구마	덕진, 미암	밤고구마로 당도가 높다
김장무, 김장배추, 알타리무	덕진, 신북, 시중, 도포	야산 개간지의 황토에서 재배
영암월출수박	덕진, 신북, 시중, 도포	당도가 높고 신선도가 오래감
무화과, 무화과잼	삼호	무공해 저농약, 전국생산량의 70%를 생산
풋고추	신북, 시중, 도포, 미암	표피가 매끈하고 빛깔이 곱다
오이	신북, 시중, 도포, 서호	육질이 단단하고 윤기가 난다
애호박	시중	-
토마토	신북, 시중, 도포, 서호, 미암	당도가 높고 단단한 육질
파프리카	학산	유리온실에서 청엿 재배
팽이버섯	서호	육질이 단단하고 맛이 담백
배	신북, 시중, 도포	당도가 높고 과육이 유연
단감, 단감잼	신북, 시중, 도포	-
대봉	금정	색과 향이 월등

들의 농촌에 대한 향수 등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의 확대가 우리의 옛 고향의 모습을 지키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음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영암군 군서면 구립 마을과, 죽정 마을의 경우는 마을 전체의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는 고향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영암군 주민의 전통에 대한 인식으로 마을의 돌담을 유지하고 마을의 시냇가 다리를 전통적인 재료인 화강석으로 하여 전통적인 형태로 만들어 놓는 등 옛 마을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은 매우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박 가정이나 증가의 경우는 전통과 농촌 문화관광에 대한 이해를 더 확고히 하여 주택의 유지보수, 개량, 증축, 신축 시에도 실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박가정은 다음과 같은 기본을 유지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가. 주택의 재료는 전통적인 재료를 사용한다.

주택유형이 한옥인 경우는 원형을 가능한 유지하도록 하고, 신축 개축의 경우 전통적인 재료가 아닌 경우는 주재료를 붉은 벽돌만을 쓰되 가능한 전통재

표 6. 왕인문화축제에 출품된 영암군 증가집 음식

2000년 왕인문화축제		2001년 왕인문화축제	
종 가	음 식 명	종 가	음 식 명
영암읍 망호리 경주이씨	구절판, 정과류(연근, 무, 도라지), 한과류(약과, 강정 3종, 편강), 다식류(녹차, 송화, 흑임자), 유과류	영암읍 망호리 경주이씨	구절판, 정과류, 한과류, 부꾸미, 김부각, 오징어 문양 오름
덕진면 영보리 전주최씨	우두육, 녹두전, 석화전, 수정과	덕진면 영보리 전주최씨	우두육, 홍어찜, 동동주
금정면 아천리 이흥민씨	다식(송화, 콩, 검정깨등), 강정(콩, 깨, 들깨), 생표고요리(표고전골, 표고전, 생표고소금구이), 밥	금정면 안로리 하송정씨	표고버섯전, 덕덕동동주, 약밥, 인절미, 홍어
신북면 모산리 강릉유씨	화전(벗꽃, 자운영, 진달래), 한과, 녹두전, 어전, 육전	신북면 모산리 문화유씨	메밀묵, 홍어무침, 동동주, 녹두전, 파전
시종면 봉소리 진주강씨	가물치회, 붕어찜, 메밀묵, 가물치회덮밥	시종면 봉소리 진주강씨	가물치회, 붕어찜
군서면 동구림리 창녕조씨	찜밥, 왕인청주, 어전, 육전	도포면영산리 밀양손씨	영양계죽, 메밀묵, 찹쌀무침떡, 솔잎동동주, 홍어무침
군서면 모정리 평산신씨	유과	군서면 모정리 평산신씨	유과, 동동주, 오징어무침, 맛국
서호면 밀양박씨	서호명주	서호면 태백리 밀양박씨	진양주, 메기구이, 파전
서호면 영풍리 함평노씨	봉공예	영암군 생활개선회	미꾸라지구이, 버섯전, 홍어찜, 한방차, 호박식혜, 동동주
서호면 음식보유자	한주	삼호면 서호리 추계추씨	무화과동동주, 파전, 홍어왜국밥
학산면 광암리 연주현씨	화전, 접산적, 녹두전, 낙자짚구이, 산채토화젓, 비빔밥	학산면 학계리 연주현씨	화전, 동동주, 홍어회, 녹두빈대떡, 파전, 토하젓, 비빔밥
미암면 선황리 창녕조씨	낙자구이, 연포탕, 낙지초국, 낙지초무침, 갈비찜, 밥	미암면 선황리 함양박씨	검정콩 두부, 두부파전, 비지밥

료를 사용한다. 침실의 경우 온돌난방을 하고 바닥마감은 가능한 전통 한식 재료를 사용한다. 주택의 담장은 흙 돌담을 쌓아올리는 방식으로 통일한다.

나. 화장실은 관광객의 피로를 풀을 수 있는 온수 샤워시설을 갖춘다.

다. 여름철 농촌주택의 최대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해충으로부터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 전체에 방충망을 설치한다.

2. 영암군의 전통식품 개발

영암군은 넓은 평야와 인근에는 갯벌이 있는 바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4계절 동안 풍성하고 다양한 식품재료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타지역에서 먹을 수 있는 모든 향토음식이 있어 오히려 이를 차별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영암군은 전통식품과 특산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가. 어란은 영산강 하구방조제의 설치로 송어 어획량이 부족하고 제조기능 보유자에 의해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 제조방법의 계승, 발전이 시급하며 어란의 제조과정과 저장 중의 미생물 오염과 산패 방지, 포장제의 개발이 필요하다.

나. 무말랭이는 보존성과 갈변을 억제하는 방안과 다양한 가공품의 개발, 방습포장 등 간편한 규격 포장제의 사용이 필요하다.

다. 참기름은 지나친 가열처리로 인한 산화와 영양소 파괴 방지를 위한 제조방법의 표준화가 필요하고, 다른 기름 혼용조제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경우가 많아 품질 인증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라. 젓갈은 신선한 원료의 확보, 위생적 처리와 저온저장, 저식염화, 포장용기의 개발이 필요하다.

마. 감은 감쥬스, 감잼 등이 생산되고 있으나 감자찌, 감단지 등 향토색이 짙은 제품의 생산이 필요하다.

바. 오이로는 김치류의 개발이 필요하다.

사. 간척지 쌀은 흑미, 적미, 향미 등 일반 쌀과 품질면에서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기타 개발가능품목으로 절임류, 파래김치, 호박죽, 모치젓과 송어젓 등 젓갈류, 무화과 정과와 건과류 등 지역 특성을 지닌 식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전통식품들은 각 품목별 특성을 지니고 있어 나름대로의 식품영양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들 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발전을 소홀히 하여 우리 조상들의 숨쉬를 계승·발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퇴색시킨 경우가 많다.

이것은 경제성장과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로 제반 사회, 문화적인 변화가 일어나 식생활에도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전통 식생활을 유지하기가 곤란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식생활이 점진적으로 서구화되고 식품의 소비패턴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가장 특징적인 점은 조리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식품보다는 편의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는 점이다. 전통식품이나 향토음식도 가정에서 조리하는 것보다는 조리하기 편한 형태로 가공된 식품을 선호하게 되었고, 품질도 고급화된 식품을 선호하게 되었다. 또한 건강과 위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식품의 선택도 건강 지향적이고 기능성이나 식품의 안전성을 중시하게 되었다. 최근에 와서 관광객이나 일반 소비자들이 우리의 전통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통식품이나 향토음식은 첫째, 낙후된 가공기술의 답습수준에 머물고 있어 품질이 조잡하고 과학화와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 둘째, 단순 저장가공품 생산위주로 되어 있어 고급화·다양화·편의화 되어 가는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지 못하며 셋째, 가공 적성에 맞는 원료의 안정적 확보가 곤란하며 넷째, 포장기술 및 디자인의 조잡함, 판로 개척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영암군의 향토음식 및 식품 생산자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요구된다.

가. 생산과정의 표준화로 품질이 일정해야 하고, 품질보증을 강화하여 관광객이나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갖게 해야 한다.

나. 전통식품의 생산기능 보유자를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

다. 생산규모가 영세하고 식품에 대한 학문적인 배

경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산 및 판매자들에게 대한 위생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라. 전통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포장재료를 선택하여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마. 다양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의 선택 범위를 넓혀야 한다.

바. 관광객에게 전통식품이나 향토음식의 우수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식품영양학적 우수성과 특성을 자세히 홍보하여야 한다(정희중, 1991).

또한 90년대 이후로는 식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건강·기능성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외식산업이 발전하면서 산업의 발달로 가족제도가 점차 핵가족화 되어 전통식품을 가정에서 만들기 어려워졌다. 반면 국산원료를 이용한 고품질 전통식품의 생산·소비는 증가추세에 있어 수입식품과 차별화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박완수, 2001).

그러므로 영암군도 농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특산 농산물을 이용한 전통식품이나 향토음식을 산지가공 형태로 개발 육성시켜 품질면에서 고급화와 차별화가 필요하다. 이들 전통식품은 정부의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와 전통식품 명인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홍보와 소비촉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영암군의 농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왕인문화축제, 월출산과 주변의 관광문화자원을 볼거리로 활용하고 영암군이 추천하는 별미음식인 갈낙탕, 짬뽕어탕, 낙지구이, 장어구이 등과 전통식품으로 어란, 토하젓 등과 특산 농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을 개발하여 먹거리로도 특색 있고 독창성 있는 테마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관광 상품으로서의 전통식품이나 향토음식은 내적으로는 명인들의 솜씨와 원형을 보존하고 장인정신을 살리면서 외적으로는 요즈음 소비자의 기호에 맞도록 디자인 감각을 살린 형태의 변형과 포장으로 '명품' 개념의 제품을 추구하여 지역과 계절에 독특한 풍미를 가진 음식으로 기억되어 관광객이 다시 찾아오게 할 수 있을 것이다.

3. 마을과 주거공간의 청결과 쾌적함 유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침구의 형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가. 20대 관광객은 침대가 이상적이라고 한 반면 50대 이후는 이불과 요가 이상적이라고 하여 세대별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이송자, 이수정(2000)의 침구의 사용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결과 연령층이 높을수록 온돌방의 이용율이 높다는 점과 같은 결과였다.

나. 이불과 요의 홑이불(이불 호칭)이 끼워져 있는 형태는 민박가정은 자루형태로 뒤집어 끼우는 것이었으며 관광객은 별도의 홑이불을 사용하여 쉽게 갈아 사용할 수 있는 형태를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였다.

다. 홑이불은 매일 갈아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라. 침구에 사용하는 솜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민박가정에서는 1가정을 제외하고 모두 목화솜이라고 답하였으나, 관광객은 7명이 목화솜이라고 답한 반면 양모와 명주솜이 각각 9명, 4명이 답하고 있어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연령대별로 20대에서 양모솜과 명주솜을 목화솜보다 선호하며 50대에선 목화솜을 더 선호하였다.

마. 홑이불(이불, 요, 베개)로 사용하는 천은 민박가정과 관광객 모두 흰색이나 옅은 색깔의 면섬유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며 푸새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바. 베개에 사용하는 속은 메밀껍질이 이상적이라고 하나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없음을 염려하였다.

또한, 관광객이 민박을 하면서 취침시 가정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침구가 불결하다는 것, 침구가 쾌적하지 않다는 것, 이불과 요의 합성 섬유(나일론, 데트론 등)여서 불쾌하다는 것 등이었다.

4. 영암군의 생활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주민의 자긍심을 제고

죽정 마을 민박 가정의 경우는 농사를 전업으로 생각하고 민박은 단지 관광객의 숙박 제공처로서만

생각하여 전혀 이를 소득원으로 고려치 않고 있었다. 또한 민박을 하지 않는 주민의 경우 관광객들로 인해 이 마을의 정서가 해쳐질 것을 염려하여 관광객 유치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숙박 이외의 다른 관광 프로그램이나 관광단체와의 연계 등이 미흡하며 홍보에 대해서도 군에서 발행한 소개 책자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주민과 자치단체는 관광자원화의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회이나 선진사례 등 주민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주민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하며, 자치단체는 공공목적의 관광시설을 조성하고 주민은 전통가옥을 전통숙박시설, 전통음식점 등으로 활용하여, 실제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한다 (김성진, 2001). 이를 위해서 정부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존 및 관광자원화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VI. 결론

지금까지 문화관광개발을 위해서는 보여주는 것을 개발하기 위하여 박물관을 지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문화관광객은 참여하고 느끼는 관광을 원한다. 문화와 관광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박물관이나 전시장처럼 나열되어 있는 문화재보다는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함께 하는 체험을 원한다.

영암군은 다양한 문화유적이 산재되어 있고, 또한 자연, 전통, 고향을 간직하고 있는 전통 마을과 종가들이 여전히 그 기능과 형태가 훌륭하였다.

따라서 농촌관광은 관광객의 요구, 관광환경, 관광지역주민의 상호관심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상호공존과 생활복지를 증대시키는 측면에서도 본 연구의 조사지역인 영암군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요구되는 관광객의 요구와 관광환경의 여건은 잘 준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관광지역 주민의 역할과 주체적인 참여가 시작되어야 할 단계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농촌생활문화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개발을 위해서 첫째, 농촌인구의 여성화의 현실에서 농촌생활문화의 생산자라고 할 수 있는 농촌여성이 농촌문화관광자원의 생산자 및 공급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농촌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는 농촌관광개발사업에서 많은 거리가 존재하므로 주도로 행정위주로 이루어지는 관광개발에서 민간주도의 자발적인 주관기구를 두도록 한다. 셋째, 마을별로 생활문화자원을 모두 자료화하여 모든 관광자원에 이야기를 만들어 두고 주역주민이 직접 관광객에게 이야기로 전하게 하거나 활동으로 설계하여 체험하여 어떤 느낌과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참고 문헌

1. 김동한(1996), 서남권 전통식품의 세계화 전략, 한국과학재단지정 서남권 식품가공연구 및 기술지원센터 연구보고서 : 4-62
2. 김사영(1997), 농어촌지역의 관광자원개발 특화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대한관광경영학회 논문집(제9집) : 25-53
3. 김성진(2001), 고가·종택·전통마을의 보전적 관광자원화 방안, 한국관광연구원기본연구 : 1-86
4. 나승만(1997), 전남의 민속축제와 문화관광 상품화,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세미나 자료집 : 1-12
5. 농촌진흥청 농촌영양개선연수원(1994), 한국의 향토음식 : 3-476
6. 농촌진흥청 농촌지도사업보고서(2000), VIII 농촌생활개선지도 : 641-687
7. 문형수(1993), 향토관광마을 육성 지도사례, 농촌생활과학 14(3) : 47-49
8. 박완수(2001), 전통식품의 상품화, 한국가정과학회 2001년도 학술대회 : 41-52
9. 박석희(1998), 농산촌지역 수변공간의 관광개발 전략모색에 관한 연구 : 입장료 및 이용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21(2) : 249-262
10. 배영호(1995), 전통술 육성상의 문제점과 발전

- 방향, 농촌생활과학16(1) : 63-66
11. 심상도(2000), 축제를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언양·봉계 한우불고기 축제를 중심으로, 문화관광연구 : 67-104
 12. 안영면(1997), 생태관광과 유사개념에 관한 연구, 대한관광경영학회 논문집(제8집) : 251-266
 13. 영암군(1996), 영암군 관광종합개발계획
 14. 윤선영(1999),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상품개발 성공사례연구 -서대문 형무소역사관을 중심으로- 관광경영학연구 5 : 219-240
 15. 이강욱(2002), 2001년 문화관광축제의 회고와 새로운 방향 모색, 한국관광정책 : 72-75
 16. 이경자(1995), 도·농 교류의 정다운 교육행사: 공동 장 담그기, 농촌생활과학 16(1) : 67-68
 17. 이승자, 이수정(2000), 침구의 사용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2권 1호.
 18. 이장주, 조현상(2000), 지역축제의 이미지 특성에 관한 실증연구, 관광학연 24(1) : 205-224
 19. 이한기(1998), 전통토착지식 목록 소개, 농촌생활과학 19(1) : 76-79
 20. 이한기(2000), 전통지식의 개발가치 평가 연구, 농촌생활과학 21(2) : 6-10
 21. 전남소식(2000), 영암에 일본인 관광객 대거 몰려온다 내년 1월부터 매주 60명씩 3,000명, 2000년 12월 5일자
 22. 전라남도(1993), 1993년도 1읍면 1특품 육성계획 : 3-117
 23. 전라남도(1994), 전국 1군 1명품 안내 : 52-63
 24. 정승일(1998), 울릉도의 관광개발과 그 문제점, 관광지리학(제8호) : 1-23
 25. 정희중(1991), 우리고장 전통식품의 관광상품화를 위한 학술연구, 전라남도 지원연구보고서,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 45-188
 26. 조영숙(2000), 농촌·농업관광사업의 운영실태 분석, 농촌생활과학 21(2) : 17-23
 27. 지연태(1994), 농어촌 경제와 관광산업, 1994년 국제화·지방화 시대의 지역사회관광개발 전략을 위한 국제관광 세미나 자료집, 주최: 호남대학교, 한국관광공사, KBS : 17-32
 28. 한국식품개발연구원(1990), 89~90 전통식품개발사업 기술지도교육 : 5-145
 29.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3), 전통가공식품육성방안 : 1-186
 30. 함영덕(1999), 강원 양양지역 축제의 관광상품요인과 개선방안연구, 관광경영학연구(제5호) : 165-191
 31. 황중환 (2000), 향토지적재산의 정의 및 현황, 농촌생활과학 21권 4호 : 62-68